



캐리어를 끄는 여자 최지우

“주진모와 호흡 좋아 완벽한 케미 될 듯”

여주인공 차금주의 성장 스토리이자 법정 로맨스 그려

청춘가련한 여주인공이 어울리는 배우 최지우(41)가 배짱 두둑하고 노련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변신한다.

최지우는 MBC 새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잘 나가는 사무장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뒤 다시 일어서는 주인공 차금주를 연기한다.

최지우는 ‘캐리어를 끄는 여자’ 제작발표회에서 “밝으면서도 역적스러운 역할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점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랑스럽지만 주책없는 복합적인 인물인데 연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력적”이라며 “잘 표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연기를 하다 보니 캐리어우먼의 당찬 느낌과 멜로 부분의 간격이 굉장히 커서 고민이 되는데 톤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금주는 변호사 자격증 빼고는 모든 걸 갖춘 해결사 사무장. 끈질긴 성격, 어디서든 기죽지 않는 배짱,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천화력으로 소송 정보를 얻어내고, 변호사 못지않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에 재판서류를 찌러질 정도로 가득 넣고 끌고 다니는 게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한순간에 추락한 뒤 자신의 진짜 꿈과 사랑을 찾게 나선

다. 그 과정에서 파파라치 언론사 대표 함복거(주진모)를 만난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차금주의 성장 스토리이자 법정 로맨스다.

최지우는 주진모에 대해 “(과거 상대 남자배우들과) 완벽한 케미(인물간의 화학작용) 중에 최고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준씨와도 삼각관계가 되는 건가요”라며 “저는 좋은데 최대한 깨끗하게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진모는 “함복거는 사람 냄새가 나고 친근감 있는 고추장 같은 남자”라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주진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드라마는 요즘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궁금해하는 연예계나 사회적 문제들을 해석해주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함복거는 검사 출신의 언론인으로 파파라치 언론사 캐피탈을 운영한다. 온갖 정보를 쥐고 있지만 취재원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 주색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책 읽기에 골몰하는 학구파다.

주진모는 청춘 스타들이 등장하는 KBS TV ‘구르미 그린 달빛’과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와의 경쟁에 대해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좋

겠지만 타 방송 시청률을 뺏어오겠다는 마음보다 그 시간대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분방송 사수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우씨와 저는 연기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묵은지의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주진모는 1996년 잡지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영화 ‘해피엔드’(1999), ‘사랑’(2007), ‘쌍화점’(2008)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

2014년 MBC 사극 ‘기황후’에서 고려왕 왕유 역을 맡았고, 지난해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배우지만 20년간 한 여자를 사랑하는 순정남을 연기했다.

최지우는 연기 경력 22년 차로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2002년 배용준과 함께 출연한 KBS TV 드라마 ‘겨울연가’로 한류 스타가 됐다.

최근작으로 SBS TV ‘수상한 가정부’(2013), ‘유혹’(2014), tvN ‘두번째 스무살’(2015) 등이 있으며, 올해 개봉한 영화 ‘좋아해줘’에도 출연했다.

‘두번째 스무살’에서는 사고를 쳐서 열여덟에 애 엄마가 돼 스무살의 아들과 함께 대학 신입생이 되는 아줌마 하노라를 연기했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26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여친 몰카’ 혐의 정준영

“몰카 아닌 상호 인지 하에 찍은 것”

“여자친구와 영상은 찍었지만 몰래 촬영한 건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준영(27)이 25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준영은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올해 초 교체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에 장난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며 “다만 내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투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 90도로 고개를 숙인 뒤 “미숙한 처신으로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알려진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이 포함돼 있어 나는 물론이고 상대 여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사람의 눈의 끝에 기자회견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몰카’ 촬영 혐의가 알려지기 전까지 “A씨가 사소한 오해가 생기자 우발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해프닝으로 마무리했다”고 마지 사건이 일 단락된 것처럼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경찰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준영은 추후 검찰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입장 표명 외에 별도의 질의응답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바다, 9세 연하 사업가와 열애

가수 바다가 9세 연하의 사업가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의 소속사 마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바다가 9세 연하의 일반인 남성과 교제 중”이라며 “올해 초 함께 성당을 다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사람은 현재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바다의 남자친구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바다는 1997년 걸그룹 S.E.S 멤버로 데뷔했으며 2002년 팀 해체 이후 솔로 가수과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옥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너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전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제24회 임방울 국악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반성의 전설 55 별빛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0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3	00 콘서트 필 50 안녕 우리말 55 튜닝생활체조 (재)	0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깨달음시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강특 남도에 살아가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쏘리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비운의 천재 음악가, 정윤성의 선택	10 꽃놀이패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비바 크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0 이맘! 스페이스 정글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네조리트레일 열대우림)	09:40 부모-위대함 엄마	15:05 피터 래빗	(스테인리스 그릇의 변신)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야옹명명 귀여워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낙지 김치찌개와 가지무침)	15:35 요술 상자(2)	(매콤, 위대한 어머니의 강을 가다)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출동! 슈퍼승	1부 돈맛, 어부의 강)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동네의 영웅 1부)
08:00 덩동명 유치원 1~3	12:40 글로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강릉 초록 지붕을 건다)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30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다크 프리덤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줄거운 수학 EBS MATH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2:45 달라졌어요
09:15 출동! 슈퍼승	13:50 그림을 그려요(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사람과 사는 물고기)
	13:55 시계마을 타기독!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9:30 EBS 뉴스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 (음 8월 26일辛亥)

子	48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60년생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된다. 72년생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84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4, 88	午	42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겠다. 5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66년생 파격적인 양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78년생 열린 마음이 있어 새로운 기회를 잡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4, 53
丑	49년생 다중적인 점검과 빈틈없는 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때이다. 61년생 타협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73년생 상대적 일 수밖에 없다. 85년생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니 핵심을 놓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23, 43	未	43년생 대하기 부담스럽다면 확실해 피해버리는 것이 낫다. 55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오류가 보인다. 67년생 행운이 깃들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79년생 모를지거 정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09
寅	50년생 자기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62년생 바쁜 일상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74년생 기회가 올 것이니 즉시 실행에 옮기자. 86년생 언급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액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58, 21	申	44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56년생 기존과 신규 간에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68년생 진행하는 속도는 더딜 지언정 뜻하는 바는 이루어질 것이니라. 80년생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행운의 숫자 : 78, 97
卯	51년생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능력이 오르고 활력이 넘쳐나겠다. 75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87년생 단순한 비교는 오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71, 82	酉	45년생 구대의연에서 벗어나 창의적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69년생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81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 하자. 행운의 숫자 : 81, 13
辰	40년생 지나치다면 비난을 면치 어려우리라. 52년생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64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 구멍에 무너지는 법이다. 76년생 행복이 넘쳐흐르겠다. 88년생 만사를 제쳐 놓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9, 75	戌	46년생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인내를 통한 단련의 기회로 삼자. 58년생 기조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70년생 세심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82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추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4, 59
巳	41년생 길조가 따른다. 53년생 여러모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꿈에 황제를 보았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89년생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제이다. 행운의 숫자 : 20, 95	亥	47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59년생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꼭 잡아라. 71년생 처음 마음 먹었던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양태이니라. 83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31, 4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팀” ☎010-9790-8237